

## 압화 공예 작가 신재승입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현재 비비정예술열차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압화 공예 작품과 아트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압화 공예는 무엇인가요?

압화 공예는 자연이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연에서 피어나는 들꽃, 꽃들을 조심스럽게 아주 예쁘게 데려와서 이 아이들을 눌러서 수분을 제거해서 말리는 게 압화입니다.  
이렇게 압화 한 것을 가지고 다양한 곳에 접목해서 생활용품, 액세서리를 만들고 작품에 담아서 승화시키는 것이 압화입니다.

압화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제가 대학을 원예학과로 가게 되었습니다. 원예학과에 다니면서 전시회를 준비하는데 다른 친구들과 선배들은 분경이나 분재, 꽃꽂이로 전시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대구에 있는 어떤 공방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압화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 너무나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고, 대구 공방에서 압화를 처음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시준비를 작은 소품에서부터 꽃을 담아 하는 큰 액자까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작품을 만들면서 내가 직접 꽃을 채집하고 말리는 순간순간들이 다른 일을 할 때 보다 마음가짐이 남달랐습니다. 꽃을 하나하나 볼 때마다 너무 사랑스럽고 눌러서 말리고, 거기에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보존할 수 있다는 것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완주에서 압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다고?

제가 결혼을 하면서 완주군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완주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생활개선회'라는 학습 단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우연히 또 압화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 이거 대학 시절에 너무 느낌이 좋게 작품을 만들었는데”라는 생각에 다시 압화에 관심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골 지역에서 무언가 특별하게 해보자는 마음을 가졌고 서울로 전문적인 학원에 가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압화 공예 30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제가 그동안 압화 공예를 해오면서 한 20년 정도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똑같은 프레임에 꽃을 채집해서 담는 정도로만 했습니다. 이걸 하다 보니 남들과 똑같이 하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무언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방법을 찾다가 제가 전라도로 시집을 왔고 전라북도에는 한지가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지에 압화를 담아서 무언인가를 표현하면 참 좋겠다 해서 처음에는 한지등, 한지로 만들 수 있는 제품에 꽃을 담고 저만의 색을 입혀서 다양하게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사이즈만 큰 것 같았고, 특별함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른 것을 만들고 싶었고, 장신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장신구가 아니라 한지를 활용한 장신구를 만들었습니다. 전주에 있는 한지 대학원에 다니면서 한지에 대해 좀 더 공부하고 한지와 결합한 무언인가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꽃지담', 꽃을 한지에 담다라는 저만의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이때부터 다양한 압화 장신구를 만들었습니다.

세계에서 '꽃지담'의 가능성을 봤다고?

---

우리 지역에서 나는 한지의 원료인 닥섬유로 몰드를 만들고, 그 몰드 위에 자연의 천연색으로 채색하고, 자연의 들풀, 꽃들을 담아서 예쁜 장신구를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꽃지담을 가지고 중국, 일본에 가고 매우 먼 곳인 키르기스스탄에도 다녀왔습니다.  
그곳들을 다닐 때마다 세계 사람들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은 '새로움'이었습니다.  
돌처럼 무거워 보이는데 매우 가볍고 착용했을 때 나만의 것이라는 생각에 좋아들 했고 장신구에 진짜 꽃을 담았다고 하는 것에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나갈 때마다 MOU 체결도 많이 맺고 오고 저의 발전 가능성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

#### 앞으로의 작품 계획은?

세상도 둥글고 모든 것이, 지구도 둥글잖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 작품을 만들 때 작품의 액자가 사각이 아니라 원에 압화 작품들을 표현을 해봤습니다. 원에 표현했을 때 또 다른 느낌을 주더라고요  
앞으로의 계획은 원에 천연의 염색재료를 가지고, 천연의 압화를 성경 말씀을 담아서 만드는 작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2021년 4월에는 전시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 완주에서 예술가로 살아간다는 건?

압화 작품을 통해 하나, 완주의 자연을 영원히 담을 수 있는 일!  
둘, 완주의 것을 세계에 알리는 일!  
셋, 완주의 것을 통해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일!  
할 일 많은 완주가 참 좋습니다!

---